

근대 남성지식인들의 상징투쟁과 여성담론 형성 -〈별건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채석진

1. 들어가며

근대시기¹⁾ 일본은 강력한 근대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내셔널리즘²⁾의 영향 아래 있었고, 이는 식민지 조선에도 그대로 이식되어 일제 강점기 내내 식민지 조선은 내셔널리즘의 파동에 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근대 내셔널리즘은 국제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한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어 프랑스에서 꽃을 피운 내셔널리즘은 이후 독일, 러시아 등으로 퍼지면서 다양한 양태를 띠게 된다. 그린펠드(1991)에 따르면, “18세기 영국이 유럽을 지배하고, 서구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서구가 중심에 있는 사회체계에 속해있거나 혹은 그 속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회들은 국민국가(nation)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국제적 과정의 자장 안에 일본이, 그리고 그 안에 식민지 조선이 있었다.

근대 내셔널리즘의 핵심은 충성의 대상이 왕권에서 국민(people)으로 이행된다는 데 있다. 이는 기존 신분제의 붕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변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분 질서에 불만을 느끼는 영향력 있는 행위자로서 ‘제3계급’³⁾이 출현하여 사회변형 과정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한스콘, 1981). 이런 까닭에 내셔널리즘은 각 나라마다 어떠한 특성의 ‘제3계급’이 이를 주도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부르주아 세력이 충분히 제3계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만큼 성장해 있었던 18세기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는 내셔널리즘이 정치적/경제적 변동으로 나타난 반면, 부르주아 계급이 19세기 초에도 여전히 취약한 초기 단계에 있었던 독일과 이태리 및 슬라브 민족 사이에서는 남성지식인들이 주축이 되어 주로 문화적인 분야에서 내셔널리즘이 표현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 제국주의의 도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일본을 통해 수입된 독일 내셔널리즘의 영향으로 낭만주의적인 색채를 띠었고,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강력했던 사회주의 물결의 영향을

1) 한국의 근대에 대한 규정은 근대를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근대 국가 개념이 서구에서 수입되어, 근대 국가의 특성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개화기 이후 일제 강점기를 한국의 ‘근대 시기’라고 보았다.

2) 내셔널리즘을 거칠게 정의하면 각 나라가 근대국가를 수립하면서 형성된 집단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나라마다 독특한 근대 국가 수립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기존의 봉건적 신분제의 붕괴가 전제되어야 하는 점에서 내셔널리즘은 대내적으로는 평등 지향적이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자국의 강력한 국가를 추구함으로써 인해 적대적인 양상을 띤다. 이러한 적대적 양상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일본의 제국주의이다.

3) 제3계급이란 지배계급(제1계급)과 피지배계급(제2계급)의 중간에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한스 콘에 따르면, 이 새로운 계급은 귀족이나 성직자보다 전통의 구속을 덜 받고, 새로운 것을 열망하는 새로운 세력을 대표하고, 언젠가라도 과거와 결별할 자세가 되어 있었으며, 전체 민중을 대표하노라고 주장하면서 나타났다.

4) 독일은 당시 산업혁명 등을 통해 부르주아사회로의 이행과정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영국에 비해 ‘부르주아 국가’ 성격이 약했던 상황에서 ‘유기체적인 국가’를 강조하며, 영국이나 프랑스에 대해 방어적인 성격의 내셔널리즘을 표출하였다.

의도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의되는 경향이 짙다(김경일, 2002).¹⁰⁾ 이는 당시 사회적 세력으로 출현하였던 여성들 내의 다양한 분화를 간과하고, 신여성이라는 막연한 상상적 집단을 상정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집단 내에서의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가해자로서의 남성과 희생자로서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설정의 문제.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을 단순히 남성지식인들이 생산해내는 담론의 희생자로만이 아니라, 이에 소극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던 사회적 행위자로 보았다.

2. 시대에 따른 이상적인 여성 이미지의 변화

이 장에서는 여성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가 시대에 따라 사회적 맥락에서 재정의 되는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김경일(1998)은 여성을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가정하거나 거시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단순히 상대화시키는 방식으로는 여성에 대한 역동적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하며, “여성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는 다양하고 불안정한 것으로, 역사 속에서 계속 형성되고 갈등하고 해체되며 변화하는 범주로 이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여성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등장한 사회 세력의 범주에 한정하여 고착화시키지 않고 이후의 역사적 맥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되는 과정을 파악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시기별로 여성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는 것을 설명한다.

김경일(1998)에 따르면, 근대 시기의 여성에 대한 관념은 시기별로 크게 세 차례의 변화를 겪었다. 첫 번째 시기는 근대 국가와 가족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1880년대-1910년대’로, 개화파나 독립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과부재가, 축첩폐지, 조혼 폐지 등을 내세우며 전통적 가족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던 때이다(‘가족과 국가, 여성의 출현’). 두 번째 시기는 신여성의 등장한 ‘1920년대~1930년대 중반’으로, 김경일은 이 시기에 일본 신여성 운동의 유입,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 3.1 운동의 영향으로 노동운동과 부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며 남녀평등과 여성 해방이 시대사조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입센과 엘렌 케이¹¹⁾, 콜론타이 등의 여성해방과 자유연애, 성애의 자유와 같은 근대 페미니즘과 여권주의 사조가 물밀 듯이 밀려들어오면서, ‘신여자 또는 신여성’이라는 말이 1920년대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하였다고 설명한다(‘신여성과 이상적 가정’). 세 번째 시기는 ‘1930년대 후반 ~ 1945년’으로, 김경일은 1920년대 후반 전통에 대한 재인식으로 신구여성간의 선악 구도가 변하여 “신여성이라는 용어가 지니는 선의 의미나 구여성이라는 말이 연상시켰던 악

근에는 섹슈얼리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명선, 2001; 이명선, 2003; 서지영, 2004).

10) 신여성이 가리키는 여성들은 대단히 범위가 넓다. 어떤 논문은 광범위한 대중여성으로서의 신여성을 상정하기도 하고, 또 다른 논문에서는 좁은 의미로 부르주아 지식 계층의 여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교육수준에 따라 구분할 경우는 해외유학을 다녀온 여성,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장 여성, 고등학교를 졸업한 전업주부, 문자해독을 할 수 있는 여성노동자로 나누기도 한다(최수경, 이배용 외, 1993). 오숙희(1988)는 “지식인 여성들 중에도 전통적인 사고, 제도, 인습에서 벗어난 사고를 가지고 사회적 행동을 하는 여성”으로까지 좁혀서 신여성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운동사의 맥락에서 여성들의 주체적 자각을 강조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11) 엘렌케이가 한국어로 소개된 것은 1921년 시인 노자영이 <개벽>에 ‘여성운동의 제일인자 엘렌 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발표하고 1927년 이글이 개벽사에서 발행한 <세계 10대 사상가>라는 책에 포함되면서 부터이다(권보드래, 2001). 엘렌케이의 이론은 일본의 ‘신여자’ 운동을 이끌었던 여성주의 잡지 <세이토 青鞵>에서 자세히 소개하면서 그것이 한국으로 유입되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의 의미 함축을 내포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을 고안할 필요”가 있었고, 이로 인해 1930년대 후반에 ‘신여성’이 중립적 외양을 지닌 ‘현대여성’에 의해 대체되나, 이는 곧바로 전시 동원기에 모성과 가족에 갇힌 존재가 된다고 설명한다.

김경일의 시대 구분은 결정적으로 ‘1920년대 중반~1930년대 초반’ 사이에 이루어진 변화를 간과하여,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를 하나의 시기로 묶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의 분석은 여성에 대한 다양하고 모순된 담론들이 공존하며 서로 충돌하는 세밀한 과정을 분석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주체’라는 여성 관념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전혀 짚어 내지 못한 맹점을 가지게 되었다.

실제 여성에 대한 관념의 변화는 김경일의 분석보다 훨씬 복잡하고 중층적인 과정을 겪는다. 특정 시기의 여성에 대한 관념은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하게 변형된 형태로 잔존하여 있다가, 또 다른 사회적 상황 속에서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은 가장 다양한 여성에 대한 담론들이 경합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이상적인 여성상이 1920년대 초기의 근대적 여성상에서 1930년대 중반 이후 전통적 여성상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시기이고, 소비주체로서 여성이 형성되어 가던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관념의 변화 과정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대구분이 필요하다(기간 뒤에 설명한 것은 당시 남성지식인들에 의해 추구되었던 이상적인 여성 이미지이다).

(1) 개화기~ 1910년대: 국권의 대리자이자 민족의 어머니¹²⁾

(2) 1920년대~ 1920년대 중반: 근대와 진보의 상징, ‘신여성’

이 기간에는 국가나 가족의 부속물로서의 어머니나 계몽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이 아닌, ‘진보/근대’를 상징하는 새롭고 낮은 독립적인 사회적 존재로서의 ‘여성’ 관념 출현하였다.

(3) 1920년대 후반~ 1930년대 초반: 신구여성의 절충형, ‘개화하신 안주인’

이 기간은 다양한 여성에 대한 이미지들이 충돌하고 있던 시기였다. 진보/근대를 상징하는 신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1920년대 중반 절정을 이루었다가, 1920년대 후반 전통에 대한 재인식이 대두하면서 신여성과 구여성에 대한 평가의 태도도 달라지고, 이에 따라 이상적인 여성의 이미지도 변하게 된다(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상세히 서술하겠음). 이 시기에 여성은 다시 가정의 영역으로 몰려지게 되고, ‘아내’로서 자리 매김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주체로서의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1920년대 후반 이후 차차 자리 잡기 시작한다. 허보륜(2004)은 1930년대의 <신여성>(1931년~1934년)에 나타난 여성 담론과 1920년대(1923년~1926년)의 담론을 비교하며, 신여성의 허영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었던 1920년에 비하여, “30년대에는 일정수준의 소비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1930년대에는 사회의 자본주의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12) 이 시기에 만들어진 여성잡지는 세 종류가 확인된다. 최남선이 만든 대한제국 최초의 여성지인 <가영잡지>(1906년 8월 창간), 윤치오가 사장이었던 <녀조지남>(1908년 5월 창간), 자선부인회가 창간한 <자선부인회잡지>(1908년 8월 창간)가 그것이다. 여자보화원 월보의 성격으로 만들어진 <녀조지남>은 여성이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고 만들어진 <가영잡지>와 비교하여, ‘비로소 여성이 주동한’ 잡지로 일컬어지지만, 당시 개화파 남성지식인의 입장에서 여성을 계몽하며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었다(최덕교, 『한국잡지백년』, 참조). 박노자(2002)는 대개의 사학자들이 근대적 여성운동의 시초로 평가되는 ‘찬양회’를 예로 들며, 이 당시 여권 담론이 국권에 종속되어 ‘여성이 없는 여성운동’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소비사회가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태여서, “오히려 유행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변한다.

(4) 1930년대 중반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전통적인 여인상’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소비주체로서의 여성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동시에 전통적인 여성상이 다시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대두된다. 1935년 이후에는 “활력이 거세된 순종적인 여성상이자 새롭게 구축된 ‘전통’적인 이미지”가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표현되었다(이민재, 2005). 이로써 여성이 있어야 하는 이상적 자리는 ‘어머니’로 회귀한다.

1920년대 중반의 근대적 이미지의 여성에서, 1930년대 후반 전통적인 여성상으로의 변화는 각 시기에 발행된 여성지 표지 그림을 비교해보면 선명하게 나타난다.



그림 1. <신여성> 1924. 7. 그림 2. <신여성> 1924. 10. 그림 3. <신여성> 1925. 6/7.

1920년대 전반기에 <신여성> 잡지 표지를 장식한 여성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무언가 새로운 앞날에 대한 기대로 약간 달떠 있는 듯한 희망적인 이미지이다. 1924년 7월 표지의 풋풋하고 싱그러운 여성이미지를 보면, 한 손에는 양산을 들고 몸을 앞으로 약간 기울여 사뿐히 걸어가는 모습은 봄 햇살처럼 가볍다.



그림 4. 1936년에 창간된 여성지 <女性>의 속표지 그림들

이와 대조적으로 1930년대 후반의 여성잡지 표지에 나타난 여성들은 무언가에 대한 상념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마치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젊은 날을 회상하며, 그것의 덧없음에 슬퍼하고 있는 듯한 애상의 이미지이다.

1930년대 중반이후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전통성을 강조하는 이미지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상품화되고 성매화된 이미지 또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1920년대 후반 타자들의 이미지들이 근대적 대중의 형성과 더불어 대규모로 소비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런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여성들은 기괴, 에로, 그로, 년센스 등 엽기 코드들이 유행하면서 통속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격하되었으며, 여성들을 '오락'으로 소비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고정되었다(김예림, 2004)

3. <별건곤>에서의 여성담론 형성

이민재(2005)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는 신여성에 대한 논의들이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초, 그리고 1930년대 중반 사이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1930년대 중반이후 “자본주의적인 대중문화가 여성의 육체에 부과되었다는 결론이 있을 뿐,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음을 비판한다.

이 장에서는 <별건곤>을 통해 192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 초반까지 근대 여성에 관한 모순되고 상반된 담론들이 서로 충돌하며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했듯, 이 시기는 다양한 여성에 대한 관념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던 때이다. 이 기간 동안 근대를 상징하는 여성의 이미지가 전통을 재검립하며 다시 정의되는 구여성 이미지가 충돌하며 변화해갔고, 이와 함께 소비사회의 특성이 강해지며 소비 행위를 둘러싸고 형성된 여성에 대한 관념이 변화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를 분석함으로써, 1920년대의 진취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표상되었던 신여성이 1930년대 순종적이고 가정적인 존재로 다시 포섭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에 대한 담론이 당시 사회적 맥락과 접합되어, 남성지식인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주되어 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성에 대한 담론의 주된 생산자는 남성 지식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남성 지식인들의 욕망을 분석하고,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이 여성담론과 어떻게 접합되어 여성에 대한 담론질서를 형성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3-1. 남성지식인들의 담론구성체로서의 <별건곤>

<별건곤>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담론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분석대상인 <별건곤>이라는 잡지가 어떠한 담론생산의 연장선상에 있었는지 살펴보겠다.

<별건곤>은 당시 언론을 통해 신문화운동을 주도했던 천도교의 개벽사에서 간행한 잡지이다. 개벽사는 1920년에 시사종합지인 <개벽> 창간을 필두로, <부인>, <어린이>, <신여성> 등의 어린이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였다.

잡지명	종류	설명	창간일
開闢 (개벽)	시사종합지	3.1운동 이후 발간한 잡지	1920. 06
婦人 (부인)	여성지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한 잡지	1922. 06
어린이	아동지	방정환 주재 어린이 운동	1923. 03
新女性 (신여성)	여성지	<부인> 대신 발행	1923. 09
別乾坤 (별건곤)	대중지	취미와 실익 위주의 대중지	1926. 11
學生 (학생)	학생지	소파 방정환 주재	1929. 03
慧星 (혜성)	시사종합지	<개벽> 후신	1931. 03
第一線 (제일선)	시사종합지	<혜성>을 개제한 대중지	1932. 05
新經濟 (신경제)	경제지	개벽사의 대중경제지	1932. 06

표 1. 개벽사 발행 잡지들(출처: 『한국잡지백년』)

<별건곤>은 <개벽>이 발행금지 된 후, 정치색을 없애고 ‘취미 독물’임을 내세우며 발간된 잡지이다. 이와 동시에 개벽사는 <신여성>을 휴간하고 <별건곤>과 통합하였다. 즉 1922년 <부인>을 발간하고 1년 후에 제호를 <신여성>으로 바꾸어 나오던 여성 잡지가 1926년 <별건곤>으로 통합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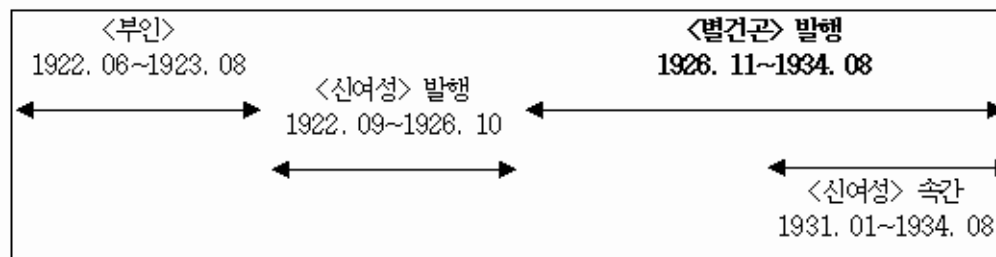


표 2. 개벽사가 발행한 여성잡지의 연속선상의 <별건곤>

따라서 <별건곤>은 남성들의 취미독물임과 동시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복합적인 특성으로 인해, <별건곤>에는 당시 남성지식인들이 추구하던 자신에 대한 욕망과 여성에 대한 욕망이 복합적으로 드러나 있다.

<별건곤>은 1926년 11월부터 1934년 6월까지 총 67권 출간되어, 거의 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발간되었다. <별건곤>은 1932년 2월까지 200쪽 가량의 분량으로 한 권에 20전씩 판매되다가, 1931년 1월 <신여성>이 다시 속간되고, 1931년 3월 <개벽>의 후신인 <혜성>이 창간되면서, 1931년 3월부터 60쪽 정도의 분량의 5전 잡지로 발행되다가 1934년 8월에 종간하였다.

<별건곤>의 기사들은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와 당시 명사들에게 특정한 주제에 대해 써달라고 청탁한 원고들로 채워졌다. <별건곤>에서는 당시 남성지식인의 놀이터였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성향을 초월한 다양한 남성지식인들의 글을 볼 수 있다. 학자, 기자 등의 직업범주에 속하는 남성지식인은 당시 중간 인텔리에 속하는 사람들로 중간계급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다.¹⁹⁾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펴낸 『고등경찰 용어사전(1933)』

19) 최진원이 구분한 남성지식인의 3범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귀족적 인텔리: 고급관리, 고급봉급생활자,

에서도 중간계급으로 ‘인테리겐찌아’를 규정하고 있다.¹⁴⁾

<별건곤>의 여성 필진들은 1920년대 이후 분화되어온 여성 집단들 가운데 가장 상층에 속하는 여성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별건곤>에서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성들은 기자, 유학과 출신의 명사, 교사로 제한되어 있고, 많은 경우 당시 유명인사의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고 있다.

3-2. 모던에 대한 재정의

먼저 남성지식인들이 1920년대 중반 ‘모던’을 어떻게 재정의하였고, 그에 따라 여성에 대한 담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다.

<별건곤>이 창간되었던 1920년대 중반은 남성지식인들의 근대에 대한 동경이 절정에 이르고 있었고, 이와 더불어 1925년 카프가 결성되며, 적어도 남성지식인 계층에 있어서 사회주의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1927년 7월호에 실린 그림에서도 사회주의의 영향을 잘 볼 수 있다(아래 그림).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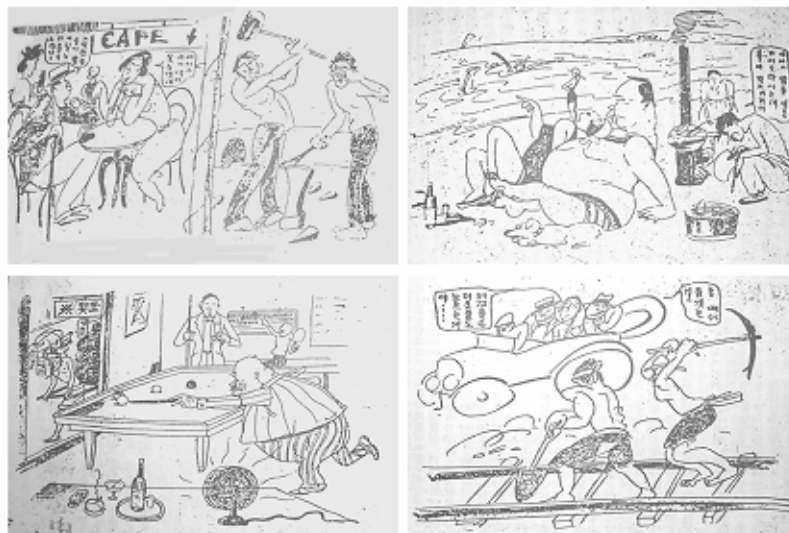


그림 9 부르주아 대 노동자(<별건곤> 1927년 8월)

지배인 등으로 자본가계급과 결합하여 부르주아의 특권을 누리며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적대적 감정을 가지는 것. ㉠ 하급 인텔리: 하급관공리, 하급 사용인 등으로 특권을 갖지 못한 채 근근히 호구하는 찌꺼기층, “관념 제조공장(교육기관)이 기업화하여 인텔리가 대량생산되고 시장에는 실직 인텔리가 범람하는 탓으로 이 하급 인텔리의 지위는 한갓 동요”되어 프롤레타리아에로의 접근이 광범해간다고 지적. ㉡ 중간 인텔리: 학자, 변호사, 기자, 교수, 언론인, 예술가, 의사, 중급 사용인 및 관공리, 기타문필 노동자, 인텔리의 귀족성을 강렬하게 발휘하며 직접 노동자의 권리를 담당하지 않는 것이 특징. 원칙이 없는 소부르주아의 부동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최진원, “인테리겐찌아론”, <조선일보>1932.2.13-3.6

14) “보통 ‘지식계급’이라고 번역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계급으로서가 아닌 권리, 회사원, 교원, 기자, 저술가처럼 직접 생산적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다수가 자본가나 그 정치기관에 고용되어 지적 사무적인 노무에 복무하는 한편에서는 노동자들 지배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층이다. 그러기에 이들은 자본가에게 고용된 점으로 미뤄보면 프롤레타리아계급에 속하고, 자본가들 원조하고 노동자 농민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방면으로부터 보면 부르주아계급에 속한다” (임현영, 1992에서 재인용)

15) 부르주아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192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다가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 남성지식인들은 근대적 남성으로서의 자리는 유지하되, 부르주아와는 구별되는 존재로 자신들을 자리매김 하고자 하였다. <별건곤>에서 <모던걸·모던보이 대논평>을 기획특집으로 실은 1927년 말은 이러한 근대에 대한 동경과 사회주의 물질이 본격적으로 충돌하던 때였다. 여기서 유광열¹⁶⁾은 모던 걸과 모던 보이로 칭할 수 있는 요건을 정신과 물질로 나누어, 진정한 근대아는 그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로 평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⁷⁾ 이 글에는 이 당시 남성지식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던 걸과 모던 보이에 대한 양가적인 시선, 즉 매혹과 경멸의 시선이 잘 드러나 있다. 박팔양¹⁸⁾은 모던보이의 생활을 “청신한 감각의 세계”, “아름다운 근대의 무지개”라고 표현하고 있고, 최학송의 글에서도 당시 남성지식인들의 모던 걸에 대한 매혹이 잘 묻어나고 있다.¹⁹⁾ 하지만 당시의 남성지식인들의 모던 걸/모던 보이에 대한 지배적인 시선은 물질적인 것에 현혹되어 유행만을 좇는 ‘정신’이 결여된 사람들이라는 부정적인 것이었다. 모던걸과 모던보이는 “유산사회를 포상하는 유산자 사회의 근대적 집단,”²⁰⁾ “「모순」으로 틀어 채운 고무주머니”²¹⁾로 표현되며 “못된걸/못된보이”가 되었다.²²⁾ ‘모던’이라는 수식어에는 유행을 좇는 행위와 연결된 부정적 의미가 덧붙여졌다.

단발을 둘러싼 논쟁: ‘사치와 허영’을 중심으로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1920년대 중반 신여성들의 사치와 허영을 비난하는 글을 쉽게 볼

16) “정신과 물질 곧 여기 정신은 그가 가진 생각의 주의를 가르치는 말이니 그 사람이 현대자유주의의 의식을 가졌느냐는 것이다. ... 그보다 더 근대사상이 있으니 그것은 합법칙성에 의한 공동주의이다. 그러니까 이 주의 가진 사람이 근대아이라 할 것이요. ... 물질방면에서 보면 ... 옷은 남루하나 공동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은 근대의식을 가지고 시대를 선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물질방면은 시체를 따르다고한 근대아라 할 수 없다.” 유광열, “모던이란 무엇이냐”, <별건곤> 1927년 12월 112쪽.

17) 이러한 물질과 정신의 이분법에 기반하여 ‘정신’을 강조하는 현상은, 산업사회가 발달하지 못하였던 국가의 남성지식인들이 내세울리움을 수입할 때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이기도 하다. 물질문명의 발달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했을 때, 느낄 수밖에 없는 열등감의 반동적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당시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노동문제에 대한 논의가 근대적 문제로 인식되기도 하였겠지만, 실제 남성지식인과 권력싸움을 할 만한 부르주아가 당시 식민지 조선에 형성되었는가는 의문이다. 당시 사회주의적 색채의 논의들 속에 등장하는 부르주아는 다분히 상상적 주체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남성지식인들의 사회주의 논쟁에만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상상의 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생활에서 남성지식인들은 당시 근대문물을 소비하는 주체였다. 이들이 보이는 부르주아에 대한 적개심은 오히려 부르주아가 되고 싶은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8) 박팔양, “모던보이 촌감(寸感)”, <별건곤> 1927년 12호, 116쪽.

19) “복와산의 찬바람이 드러날 만큼 반짝거리는 얇은 양말에 금방에 발목이나 띠지 않을까 보기에다 아심아심한 구두 뒤로 몸을 고이고 스카트 자락이 비칠 듯 말 듯한 정강이를 지나는 외투에 단발 혹은 미미가꾸시에다가 모자를 꼭 눌러쓴 모양은 멀리보아도 멀지만 가까이 보아도 흉치 안타. 어쩌다 마주치면 본능적으로 분에 길은 그 뺨과 나뭇거리는 귀 밑을 꺾는질하게 된다.” 최학송, “메카단의 상징”, <별건곤> 1927년 12호, 118쪽.

20) 박영희, “유산자사회의 소위 「근대녀」·「근대남」의 특징”, <별건곤> 1927년 12호, 114쪽.

21) 성서립, “근대적(모던) 처녀”, <별건곤> 1927년 12호, 117쪽.

22) “모던걸이 나오면 활동사진권이 따라 나오고 모던보이를 말하면 기생집이나 극장이 따라 나오는 것만은 사실이다. 내 자신도 모던걸하면 현숙한 맛은 썩드러가고 화사하고 요염한 계집-판스장에 나가는 녀배우 비슷한 계집에게서 받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와 같이 모던보이에게는 일없이 히야까시나하고 한질반질 계집의 궁둥이나 조차다니는 어떤 그림자에 가려져 건실하고 강직한 느낌은 못받는다. 판은 모던걸 모던보이라는 말을 일본이나 조선서는 불량소년 불량소녀 비슷한 의미로 쓰는 까닭에 그러게도 느껴지겠지만 그 차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도 현숙하고 건실하다는 느낌이 아닌 것만은 사실이다.” 최학송, 앞의 글.

3-3. 전통에 대한 재인식

근대 시기에 전통은 끊임없이 근대의 이미지와 상호작용하였다. 개화기 초기부터 1910년 사이, 개화파들이 중심으로 근대를 소개하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전통은 청산해야할 악습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나, 실제 생활에서 전통은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비해 1920년대에 이르러 전통은 상대적으로 그 지위가 약화되는 경향이 짙었다. 하지만 1920년대 후반 서구를 모델로 근대화를 추구하던 일본이 일본적인 것과 일본적 전통에 입각한 근대화를 선언하면서 전통의 양상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일본 지방학의 일종으로 조선학이 설립되며, 한국에서도 ‘조선적인 것’에 대해 재정의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 전통은 일본적 근대와 서구적 근대가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그것들이 한국적 전통과 상호작용해가면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경일, 1998). 이후 “조선적인 것”은 일본민족과의 유사성을 강조하는데 이용되어 민족통화정책의 일환으로 작용하게 되고, 1940년대 전시동원체제로 이행하게 된다(안태운, 2003). <별건곤>에서 <조선자랑호> 특집을 낸 1928년 5월은 일본지배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조선적인 것”을 재정의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시기였다. 물론 출판물을 발행하는데 있어서 검열을 받았던 시가이므로, 일제지배세력의 승인 없이는 <조선자랑호>라는 타이틀을 전면으로 내세워 잡지를 간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하지만 남성 지식인들은 ‘전통에 대한 재인식’ 과정을 통해, 자신에 속한 민족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근대라는 문물을 수입하는 자로서의 열등감에서 벗어나고자 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여성인 ‘구여성’에 대해서도 다차원적 시각, 사각함께 따라 구여정과 신여정을 물려온 논쟁이 야기되고, 신구여정의 결충형안이 ‘개화하신 안주안’이라는 이상적인 여성에 대한 이파자각 확고하게 자리 잡아가게 된다.



그림 11. 조선자랑호 1928.5.

신/구여성 결충론 = 개화하신 안주인

근대 문물을 수입하던 초기, 강인한 근대적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일본에서 구여성은 기존 신분제도와 가족제도를 대표하는 상징물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개화기부터 1910년대까지의 식민지 조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구여성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는 낡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1920년대 중반까지 신여성의 사치와 허영을 비난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여성이 긍정적으로 묘사되기도 하였지만(그림 참조),³⁰⁾ 전반적으로 신여성은 신가정/지향해야할 새로운 생활과 등치되었고, 구여성은 구생활/청산해야할 인습과 등치되고 있었다.

1920년대 후반에도 신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호의는 지속된다. 이는 당시 근대를 상징하는 신가정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신여성을 아내로 맞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남성 지식인들은 “개인의 완성한 인격의 도야도 가정에 있고 사회의 건전한 성장 발전도 가정으로부터 되는 것”이므로 “완전한 신가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여성이여야” 한다고

30) 예를 들면, 자신의 손으로 밥 하나 못 짓는 신여성을 비난할 때, 구여성은 다소 긍정적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신여성이 허영과 사치로 가득 찬 미성숙한 존재라면 구여성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존재로 표상된다. “신식시어미와 구식며느리” 별건곤 1928년 12월호, 112쪽.



그림 12. 신식시어머니 구식며느리

밀어도 절대 이혼을 안 하는” 안정적이고 우직한 반면, 신여성은 “조그마한 이유라도 한편을 버리고 나가 버린”다고 서술하고 있다. 자유연애를 추구하는 신여성은 아직 봉건적인 생활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남성에게 몸에 맞지 않는 예쁜 옷과 같은 존재였다. 남성들에게 신여성들은 언제 자신을 버리고 갈지 모르는 공포감을 주는 존재였고, 또한 “음식과 의복 등에 대한 기초적 학습과 연습이 부족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답답”⁸¹⁾하게 만드는 존재였다. 이처럼 신여성은 “바늘은 유성기 돌리는 데에만 쓰는 줄 아는 철없는” 아내여서⁸²⁾ 생활적인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신가정/구가정’과 ‘신여성/구여성’에 대한 논쟁을 거치며, ‘신/구여성 절충론’이 대두된다. 남성지식인들은 이상적인 신여성이 구비해야 할 요건으로 근대적인 방식으로 가정살림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다. 신가정을 함께 이룩하기 위해 신여성이 필요하지만, “외모만 신여성이라고 해서 신여성이 아니라 7덕을 구비해야 신여성”인데, 그렇지 못한 신여성은 신여성이 아니라 “멍텅구리 뿌르조아 파님”으로 규정된다.⁸³⁾

더 나아가 남성지식인들은 ‘방문기’, ‘인물평판’ 등을 통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글에서 여성들은 대부분 “○○○씨의 부인”으로

81) ‘지상토론 현하조선에서 주부로서 여교출신이 나혼가 구여자가 나혼가?’ 별건곤 1928년 12월호, 90쪽.

82) “남자 잡아먹는 구여자”, 별건곤 1927년 8월호, 72쪽.

83) “구여자는 가정에 두지도 말자”, 별건곤 1928년 12월호, 97쪽.

84) “구여자는 오죽 충실한 노예”, 별건곤 1928년 12월호, 93쪽.

85) 당시 아직 전통적인 결혼제도의 자장 안에 있던 남성지식인들은 일찍 집에서 정해준 구여성과 이미 결혼한 경우가 많아서, 신여성들을 만나 다시 재혼을 하거나, 아니면 집안의 반대로 구여성인 아내(‘본처’)들 시골에 둔 상태로 신여성과 또 다른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의 신여성들이 ‘제2부인’이 되었다(김운선, 2004). ‘제2부인’은 당시 사회적으로 ‘자유연애’ 사상이 퍼지면서 생겨난 과도기적 존재이다. 자유연애를 좇는 여성들은 남성들이 구여성과 결혼한 것은 집안의 뜻에 따라 한 것뿐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 결혼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지식인 여성들과 남성들이 동거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신여성들은 전통사회의 악습 가운데 하나인 첩이나 소실과 구별되는 존재로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연애에 따라 두 번째 부인이 된 여성을 ‘제2부인’이라 칭하였다.

86) “신가정의 장점과 단점”, 별건곤 1929년 12월호, 28쪽.

87) 별건곤 1929년 4월, 82쪽.

88) “신여성은 칠덕이 구비”, <별건곤> 1928년 12월호, 90쪽. 이 글에서 제시하는 신여성이 갖추어야 할 7덕은, 첫째, 신여성은 지식이 있음으로 이해력이 있는 것, 둘째, 신여성은 지식 있음으로 위생관념이 있는 것, 셋째, 신여성은 가사치리를 과학적으로 하는 것, 넷째, 신여성은 계산에 밝을 것, 다섯째, 신여성을 자녀양육을 바르게 하는 것, 여섯째, 신여성은 점이나 전보들 볼 줄도 알고 할 줄도 아는 것, 일곱째, 신여성은 (남편 원고나 장부들 정리하는 등 남편의) 일의 동무가 되는 것이다.

호명되며, “현모양처 타입이신 분”, “개화하신 안주인”, “안정사(政事)에 틈 없는 분”, “다취미하신 현대식 주부”, “가사에 조리가 계신 주부”로 존재한다.³⁹⁾ 이러한 주부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상화는 전국의 여성들을 집안 살림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글 등을 통해서도 강화된다.⁴⁰⁾

이러한 신여성에 대한 사회적 규정 속에서, 지식인 여성들 또한 현모양처로서의 주부의 역할을 강조하고,⁴¹⁾ ‘결혼생활에 대한 소감문’을 통해 자신을 남성들이 규정하는 이상적 이미지에 맞추어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듯 근대적 삶에 대한 동경, 현실적인 불편함, 사회적 세력으로 성장하는 여성에 대한 공포감, 전통에 대한 재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개화하신 안주인’이라는 신여성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가 형성되고, 여기서 신여성에 구비해야 할 요건으로 근대적인 가정살림을 운영하는 능력이 강조된다.⁴²⁾ 이런 담론은 가정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당시 사회적 세력으로 급성장하던 여성들을 여전히 남성 중심의 위계질서가 확고하게 남아있는 가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데에도 성공적으로 기여하였다.

3-4. 성을 둘러싼 갈등

20년대 초중반 신여성들을 비난하는 가장 큰 기준이 사치와 허영이었다면, 1920년대 후반에 가까워질수록 ‘성적 타락’이 여성들을 등급매기는 기준이 되는 경향이 짙었다. 독신녀⁴³⁾에 대해 평할 때도 “얼굴에는 천연두 흔적. 노처녀 선생, 곰보선생⁴⁴⁾에서 품행이 정숙하지 못한 ‘악마’, ‘타락녀’로 바뀐다. 사치와 허영으로 여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부르주아와의 차별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면, 성적 타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평가는 당시 팽배해 있던 성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⁵⁾

근대시기 성은 ‘근대적 남녀관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이명선, 2000). 1920년대에는 서구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을 중심으로, 자유연애, 결혼, 이혼 등이 소개되고 주장되면서 성과 육체를 둘러싼 관심도 확대되었다. 또한 실제 생활면에서는 일본식 성문화가 확산되며 실제 생활 속에서 성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졌고 실제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⁴⁶⁾ 당시 가장 많은 인구가 종사하였던 농가경

39) “체조선생 부인방문기”, 별건곤 1928년 12월호.

40) “팔도여자 살림살리 평판기”, 별건곤 1928년 12월호. 이 글에서는 침공잘하는 경기여자, 특색없는 충청도 여자, 나물 잘하는 강원도 여자, 장사 잘하는 황해도 여자, 길삼 잘하는 경상도 여자, 음식 잘하는 전라도 여자, 농사 잘하는 평안도 여자, 시장 잘 보는 함경도 여자로 나누고 있다.

41) 별건곤 1927년 1월호, 80쪽.

42) 신여성이 갖추어야 할 7덕은, 첫째, 신여성은 지식이 있음으로 이해력이 있는 것, 둘째, 신여성을 지식 있음으로 위생관념이 있는 것, 셋째, 신여성은 가사처리들 과학적으로 하는 것, 넷째, 신여성은 계산에 밝을 것, 다섯째, 신여성을 자녀양육을 바르게 하는 것, 여섯째, 신여성은 편지나 전보들 볼 줄도 알고 할 줄도 아는 것, 일곱째, 신여성은 남편 원고나 장부들 정리하는 등 남편 일의 동무가 되는 것이다. “신여성은 힘덕이 구비”, <별건곤> 1928년 12월호, 80쪽.

43)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는 그들의 결혼여부이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의 경우 동정의 대상이거나 위협스러운 존재로 묘사된다.

44) “평판 좋은 여선생님들”, 별건곤 1926년 12월, 64쪽.

45) 1920년대 후반부터 <별건곤>에 매독약 광고가 증가하는데, 이는 매독에 뇌에까지 퍼져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팔랑히 무서운 병임을 강조하고 있다.

46) 조선에서 성매매가 증가하여 성병이 사회문제가 되어 표면화 된 것은 1899년 대한제국 경무청에서 성매매 단속을 시작한 때부터이다. 성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창화가 시도된다. 1876년 병자수호조약 체결이후

제가 붕괴되며, 많은 여성들이 유곽으로 유입되며 중국요리집, 점집, 여관, 하숙집 등 다양한 곳에서 사창들이 활개를 치던 때였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성에 대한 욕망이 증폭됨과 동시에 성관계가 가져다줄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한 공포감도 커져있는 상태였다. 1927년 8월 <별건곤>에 실린 '방학동안 경성거리'라는 그림은 당시 성과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일상적인 영역에서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중국요리집이라는 간판 뒤로 벌거벗은 여자가 누워있는 것이 보이고, 왼편으로는 매독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이 보인다.⁴⁷⁾



그림 13. 방학동안의 경성거리(<별건곤> 1927년 8월)

성에 대한 논의는 크게 192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구분된다. 초기 성에 대한 논의는 문란해진 남녀관계를 우려하며, 성을 바로 알자는 계몽에서 시작되었다. 성을 터부시함으로써 생긴 성에 대한 무지가 원만하지 못한 부부생활을 비롯해 여러 가지 비극을 낳으므로 성을 양지로 끌어내어,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자는 요지였다(전경옥 외, 2004). 그러다 1920년대 후반 성과학이 도입되며, 과학으로 성을 통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되었고,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질적인 변화가 생긴다. 다음에서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겠다.

위험한 여성들, 예로 100%

<별건곤>에는 여성들에 대한 성적 통제권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남성지식인들의 공포감이 잘 드러나 있다.⁴⁸⁾ 예를 들면, '욕정의 자취'라는 글의 주인공들인 S와 H는 1년간 욕정에 불탔으나, 여자가 남자를 지켜워하자, 남자는 그 아버지 앞에서 독약 먹고 자살했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남성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에 익숙한 남성들이 여성

일본인 거류지에 유곽이 들어서며 집창촌이 형성되고, 이후 도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집창화가 진행되었다. 1908년 9월 경시청령 기생단속령, 창기단속령이 내려지면서 공창의 제도화가 법적 측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전경옥 외, 2004).

47) 1927년 12월 9일자 동아일보 공사창 통계들 보면, 공창 유곽 수만도 580개(조선인 234, 일본인 354)였고, 여기에서 일하는 매춘여성의 수는 3212(조선인 1034, 일본인 2178)명이었다. 사창의 경우는 매춘여성 4780(조선 2454, 일본인 2326) : 공사창 조선인 매춘여성=3488명 - 탈세가 가능한 성매매인 사창이 만연되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며 훨씬 더 많은 수의 매춘여성이 있었을 것임.

48) 이런 글은 대부분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결국 남성 필자가 파멸하는 이야기이다. "사랑하는 안해를 죽이고 내가 자현하기까지", <별건곤> 1927년 7월호, 65쪽. "젊은 안해의 위험시대", <별건곤> 1927년 7월호, 70쪽.

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에 대한 엄청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글에서 신여성은 저항할 수 없는 성적 매력을 지닌 위험스러운 존재로 표상된다. 이런 특성으로 신여성은 타락의 길에 빠지기 쉽고, 남자들로 하여금 헤어 나오지 못하여 하여 파멸의 길로 가게 하는 존재이다.

성적 타락을 중심으로 여성들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기사들은 실화의 형식을 통해 표현되기도 하고, 사화/전설/민담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기담/괴담의 형식을 띠기도 한다.

초기 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주로 남성들의 경험담이나 사화, 민담, 전설 등의 이야기 형식으로 등장한다. '실화'에서는 이러한 기사들은 부인이 있는 남성이 다른 신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것은 로맨스로 그려지는 반면⁴⁹⁾, 남편을 떠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여성은 '타락녀'로 그려지고 결국 이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루는 구조의 이야기들이다. 대부분 한 남성만을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는 여성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묘사되고⁵⁰⁾, 다른 남자에게 가는 여성은 "욕정에 가득 찬" 여성으로, 결국 남성을 파멸시키는 여성으로 그려진다.⁵¹⁾

'사화/전설/민담'에서는 남편과 대등한 권력을 누렸던 한고조 유방의 아내인 여태후를 희대의 악녀로 논하며 '고급탕녀'라 칭하고 있고⁵²⁾, 황진이를 남성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너 가야할 시험물로 그리고 있다.⁵³⁾ 전설을 소개하는 기사 또한 여성의 정조를 강조하거나, 남자를 홀리는 위험한 존재로 여성을 그린다.⁵⁴⁾

이에 대한 여성의 목소리는 '참회록'의 형식을 통해서만 드러난다.⁵⁵⁾ 이는 남성지식인들이 여성들의 참회형식을 빌려 자신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도는 우미안 사건의 보도 태도에 잘 드러난다. '삼천 명의 남자를 농락한 희대의 요부' 우미안이 비판해 자살하면서 유서에 "나는 친구사상이 교착된 시대에 태어나서 유소로부터 방종하였으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겠다고 한 것이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며, "끝으로 여계 동포들은 무심코라도 자신과 같은 길에 발을 들어놓지 말기 바라며 한마디 남긴다"고 썼다고 말하고 있다.⁵⁶⁾ 여기에는 남성에게서 성적 통제권을 빼앗은 여성에 대한 응징과 위협, 그리고 해당 여성의 참회를 통해 다른 여성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욕망이 잘 드러나 있다.

성과 관련하여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은 타자의 이미지가 대량으로 창출·유포되기 시작한 192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부터 질적인 변화를 겪는다. 김예림(2004)은 이 즈음

49) "소설보다 기인한 사실로맨스", 별건곤 1927년 7월호, 8쪽

"소설이상 영화이상 진기한 연애전람회 - 판세상 가셔도 눈물로 태우는 연애", 1929년 1월호, 106쪽

50) "삼십일세의 수절 노처녀", 별건곤 1930년 3월호, 99쪽

51) "욕정의 자취", 별건곤 1930년 3월호, 101쪽

52) "고급탕녀여태후", 1927년 11월, 141쪽.

53) "여류대기인 개성명기 황진이", 별건곤 1929년 8월호; 서화담은 황진이 미색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당대 명승인 만석선사는 황진이의 시험에 넘어가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이 됨.

54) "점연(작사랑)처녀의 혼", 1929년 8월호, 41쪽: '만일 오늘 밤에 인연을 맺으면'의 대구를 찾아야 어여쁜 미인과 가약을 할 수 있음. 답은 '죽은 향군이 황전에서 곡을 하리라', 이 여자의 정조에 깊이 탄복함. "청원귀 화려춘", 별건곤 1929년 8월호, 50쪽: 절대미인의 애정에 홀려서 과부와 언약을 맺음. 알고 보니 무덤과 사람의 해골. 송나라 도종황제의 후궁으로 화려춘이라는 여자의 무덤이었다고 함.

55) 모던 걸 참회록 시리즈, "부호가의 애녀로 여배우 매소부가 되기까지", "이과연애로서 전전애까지", <별건곤> 1928년 12월호, 167쪽부터.

56) "삼천여 남자를 농락한 희대 요부, 황동 괴미인 우미안 애화. 늙어지기 싫어서 투해 자살", <별건곤> 1929년 8월호, 98쪽.

했던 여성들은 다시 가정이라는 공간으로 몰아져 ‘아내’라는 역할에 갇히게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 결혼 여부를 중심으로 여성들을 평가하면서, ‘처녀시절’을 대단히 위험한 시기로 규정하고,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직업을 갖고 생활하는 여성들을 끊임없이 ‘성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공격존재로서의 정당성을 제거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1930년대 후반에는 새롭게 만들어진 전통적인 여인상으로 이상적인 여성상이 변하고, 이에 포섭되지 않은 여성은 남성들의 성적 관람물이 된다.

4. 결론

부르디외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적인 권력 양태를 ‘상징 권력’으로 규정한다. ‘상징 권력’이란 물리적인 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피지배자의 인정과 승인을 전제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지배를 말한다. 즉 부르디외가 의미하는 지배의 상태란 물리적인 폭력의 상태가 감정적인 상태로 승화된 것으로, 지배 관계는 피지배자들이 지배자들을 권력의 정당한 행사들이라고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홍성민, 2000). 이러한 맥락에서 부르디외는 “권력관계에서 지배자의 역할을 하는 쪽뿐만 아니라 종속적 위치에 처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도 그러한 권력관계를 구성하는 삶의 원칙들을 자연스럽고 적절하고 정당한 것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불평등한 사회의 상징적 질서가 널리 유지되고 심지어 존중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윤조원, 2003: 16). 따라서 사회 집단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지지해줄 상징 질서를 만들기 위해 ‘상징 투쟁’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투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집단, 즉 계급은 한정되어 있다. 상징투쟁은 문화자본을 가지고 있는 계급간의 세력싸움이고, 여기에 문화자본을 가지고 있지 못한 노동자 계급은 제외된다.⁶⁰⁾ 상징 투쟁 과정에서 지배 계급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유지해주는 상징질서를 재생산하기 위해 행사하는 힘들을 부르디외는 ‘상징 폭력’이라고 지칭하는데, 피지배자는 ‘상징 폭력’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지배계급이 생산한 상징(담론)질서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개화기부터 1910년대까지 남성지식인들은 서구문화를 추구하며 전통 세력과 자신을 차별화하였다. 서구 문화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일본지배세력과 식민지 조선 남성지식인들은 일정 정도 동일한 기반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당시 남성지식인들은 근대국가의 어머니로 여성을 표상하며, 구세력과의 상징투쟁에서 자신들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꺼이 여성해방적인 담론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형성되었던 여성에 대한 이분법이 신여성과 구여성이었다.

하지만 1920년대 이후 상황은 변하였다. 구세력과 상징투쟁에 활용하였던 여성들이 남성 지식인들을 위협하는 사회적 세력으로 성장했던 것이다. 이제 남성지식인들의 싸움은 새로 부상한 여성 세력들을 대상으로 양상이 바뀌었다. 하지만 남성지식인에게 신여성은 버릴 수만은 없는 존재였다. 남성지식인들은 피식민지 국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라가 부강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새로운 문화를 가져야한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이와 함께 남성지식인들은 서구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전유함으로써 타자화된 식민지 조선의

60) 부르디외의 계급투쟁 개념은 다른 사회과학 이론의 계급투쟁 개념과 차이가 난다. 맑스나 알튀세르 등의 정통 사회비판이론가들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간의 계급투쟁을 전제로 이데올로기 투쟁을 언급한 반면, 부르디외는 상징권력을 유지 획득하기 위한 부르주아 내(부르주아와 때때 부르주아 간)의 상징투쟁으로 계급투쟁을 상정한다.

남성이 아닌 세계 시민으로 자신들을 규정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세계시민으로서 적합한 새로운 생활양식을 만들어가고자 하였고, 축음기와 피아노가 있는 자신들의 이상적인 가정과 이에 걸맞는 새로운 아내를 꿈꾸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해줄 수 있는 도덕적 기반을 확보하고, 이러한 문화적 우월성을 통해 다른 세력들의 승인을 얻고자 시도했다.

<별건곤>에는 당시 남성지식인들이 새로운 여성 집단에 대해 느꼈던 패욕과 공포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들에게 여성은 근대로 가는 통로이자, 동시에 자신의 남성성을 빼앗아 갈지도 모르는 미지의 대상이었다. 남성지식인들은 이러한 딜레마를 여성에 대한 상징질서-명예로운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간의 등급 매기기-를 구축함으로써 극복하였다. 명예로운 여성을 가정에 속하는 존재로 규정함으로, 사회적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인 여성을 자신들의 권력이 통제하는 집안으로 끌어들였고, 그렇지 못한 여성들은 타락한 여성으로 규정하여 여성들의 사회적/정치적 힘과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신여성들은 이러한 전략에 맞추어 자신들의 정당성을 추구하였고, 스스로 명예로운 여성이 되기 위해 남성지식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여성에 관한 담론 질서에 맞추어 스스로를 규정하며, 명예롭지 못한 여성과 자신들을 구별 짓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여성들은 남성지배자들이 생산하는 지배적 여성담론의 소극적 혹은 적극적인 공모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참고문헌>

- 강이수(1999), "근대한국 100년과 여성의 삶", <경제와 사회> 제44호.
- 강이수(2004), "근대 여성의 일과 직업관", <사회와 역사> 제65권.
- 권보드래(2000), "공화의 수사학과 일부일처제", <문화과학> 2000년 12월호.
- 권보드래(2001), "연애의 형성과 독서", <역사문제연구> 제7호(2001년 12월호).
- 권희영(1998), "1920년~1930년대 '신여성'과 모더니티의 문제", <사회와 역사> 제54집.
- 권희영(2004), "호기심 어린 타자-구한말 ~ 일제 시기의 매춘부 검진", <사회와 역사> 제65권.
- 김경일(1998), "한국 근대사회의 형성에서 전통과 근대-가족과 여성 관념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54집.
- _____(2000), "일제하의 신여성 연구-성과 사랑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57집.
- _____(2001), "식민지 여성 교육과 지식의 식민지성-식민 권력과 근대성의 각축", <사회와 역사> 제59집.
- _____(2002), "일제 하 여성의 일과 직업", <사회와 역사> 제61권.
- 김도형(1998), "1920년대 천도교계의 민족운동 연구", <역사와 현실> 제30권.
- 김수진(2000), "'신여성', 열려 있는 과거, 맺어 있는 현재로서의 역사쓰기", <여성과 사회> 11호.
- 김예림(2004), <1930년대 후반 근대인식의 틀과 미의식>, 소명.
- 김윤선(2004), "Key-Word로 읽는 <신여성>의 성과 사랑", 수유너머 2004년 겨울강좌 강의론, 미발표 논문.
- 김일란(2002), "기생, 혹은 근대여성의 증식주체", <문화과학> 제31호, 문화과학사.
- 김진송(1992), "식민지 근대화와 신여성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 나혜석 -자유주의의 파탄", <역사비평> 1992년 여름호.
- 김진송(1999), <서울에 판스홀을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 김채현(1992), "식민지 근대화와 신여성 최초의 근대무용가 최승희 -근대무용의 민족적 표현", <역사비평> 1992년 여름호, 역사문제연구소.
- 노동은(1992), "식민지 근대화와 신여성 최초의 여가수 윤심덕 -허무주의의 비가", <역사비평> 1992년 여름호, 역사문제연구소.
- 리타펠스키(1998), <근대성과 페미니즘>, 김영찬 · 심진경 역, 거름.
- 박노자(2002), "국권에 종속된 여권 담론: 근대 여성운동의 딜레마", <인물과 사상> 2002년 10월호.
- _____(2003), <나를 배반한 역사>, 인물과 사상사.
- 박정애(2000), "초기 '신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교육 - 1910 ~ 1920년대 초반 여자 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 <여성과 사회> Vol.11, 한국여성연구소.
- 서지영(2003), "식민지 시대 카페 여급 연구", <한국여성학> 제19권 3호.
- _____(2004), "식민지 근대 유흥 풍속과 여성 섹슈얼리티", <사회와 역사> 제65권.
- 소현숙(2000), "일제시기 출산통제담론 연구", <역사와 현실> 제38권.
- 송호숙(1992), "식민지 근대화와 신여성 최초의 여류소설가 김명순 -자유연애주의의 비극", <역사비평> 1992년 여름호.
- 스튜어트 홀 외(1996), <현대성과 현대문화>, 전효관 외 역, 현실문화연구.
- 안태윤(2003), "일제말기 전시체제와 모성의 식민화", <한국여성학> 제19권 3호.
- 양은경 외 5인(2002), <문화와 계급: 부르디외와 한국 사회>, 동문선.

이명선(2001), "식민지 근대의 '성과학' 담론과 여성의 성(Sexuality)", <여성건강> 제2권 2호

——(2003), “근대의 ‘신여성’ 담론과 신여성의 성매화”, <한국여성학> 제19권 2호.

이민재(2005), “안석주의 여성이미지 연구- 근대 여성 주체의 등장과 ‘새로운 전통성’의 구축”, 미발표 논문.

이배용(1999), “개화기 ·일제시기 결혼관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 <한국근현대사 연구> 제10집.

이상길(2001), "문화생산과 지배", <언론과 사회> 9권 1호

_____(2003), “인텔리위안소, 혹은 식민지 공론장의 초상”, <문화과학> 제36호

이희경(2004), “‘여학생’-제3성분의 탄생”, 수유너머 2004 겨울강좌 강의록, 미발표 논문.

(continued)

Figure 6. The effect of the initial concentration of the monomer on the polymerization rate. The reaction conditions were as follows: [AIBN] = 0.005 mol/L; [M] = 0.05–0.2 mol/L; [KBrO₃] = 0.005 mol/L; [HCl] = 0.05 mol/L; T = 70 °C; t = 0–180 min.

[illegible]

Figure 1. The effect of the concentration of the solution on the adsorption of the dye. The concentration of the solution was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5,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5.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5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5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15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80000.0, 9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600000.0, 700000.0, 800000.0, 900000.0, 1000000.0, 1500000.0, 2000000.0, 3000000.0, 4000000.0, 5000000.0, 6000000.0, 7000000.0, 8000000.0, 9000000.0, 10000000.0, 15000000.0, 20000000.0, 30000000.0, 40000000.0, 50000000.0, 60000000.0, 70000000.0, 80000000.0, 90000000.0, 100000000.0, 150000000.0, 200000000.0, 300000000.0, 400000000.0, 500000000.0, 600000000.0, 700000000.0, 800000000.0, 900000000.0, 1000000000.0, 1500000000.0, 2000000000.0, 3000000000.0, 4000000000.0, 5000000000.0, 6000000000.0, 7000000000.0, 8000000000.0, 9000000000.0, 10000000000.0, 15000000000.0, 20000000000.0, 30000000000.0, 40000000000.0, 50000000000.0, 60000000000.0, 70000000000.0, 80000000000.0, 90000000000.0, 100000000000.0, 150000000000.0, 200000000000.0, 300000000000.0, 400000000000.0, 500000000000.0, 600000000000.0, 700000000000.0, 800000000000.0, 900000000000.0, 1000000000000.0, 1500000000000.0, 2000000000000.0, 3000000000000.0, 4000000000000.0, 5000000000000.0, 6000000000000.0, 7000000000000.0, 8000000000000.0, 9000000000000.0, 10000000000000.0, 15000000000000.0, 20000000000000.0, 30000000000000.0, 40000000000000.0, 50000000000000.0, 60000000000000.0, 70000000000000.0, 80000000000000.0, 90000000000000.0, 100000000000000.0, 150000000000000.0, 200000000000000.0, 300000000000000.0, 400000000000000.0, 500000000000000.0, 600000000000000.0, 700000000000000.0, 800000000000000.0, 900000000000000.0, 1000000000000000.0, 1500000000000000.0, 2000000000000000.0, 3000000000000000.0, 4000000000000000.0, 5000000000000000.0, 6000000000000000.0, 7000000000000000.0, 8000000000000000.0, 9000000000000000.0, 10000000000000000.0, 15000000000000000.0, 20000000000000000.0, 30000000000000000.0, 40000000000000000.0, 50000000000000000.0, 60000000000000000.0, 70000000000000000.0, 80000000000000000.0, 90000000000000000.0, 100000000000000000.0, 150000000000000000.0, 200000000000000000.0, 300000000000000000.0, 400000000000000000.0, 500000000000000000.0, 600000000000000000.0, 700000000000000000.0, 800000000000000000.0, 900000000000000000.0, 1000000000000000000.0, 1500000000000000000.0, 2000000000000000000.0, 3000000000000000000.0, 4000000000000000000.0, 5000000000000000000.0, 6000000000000000000.0, 7000000000000000000.0, 8000000000000000000.0, 9000000000000000000.0, 10000000000000000000.0, 15000000000000000000.0, 20000000000000000000.0, 30000000000000000000.0, 40000000000000000000.0, 50000000000000000000.0, 60000000000000000000.0, 70000000000000000000.0, 80000000000000000000.0, 90000000000000000000.0, 100000000000000000000.0, 150000000000000000000.0, 200000000000000000000.0, 300000000000000000000.0, 400000000000000000000.0, 500000000000000000000.0, 600000000000000000000.0, 700000000000000000000.0, 800000000000000000000.0, 900000000000000000000.0, 1000000000000000000000.0, 1500000000000000000000.0, 2000000000000000000000.0, 3000000000000000000000.0, 4000000000000000000000.0, 5000000000000000000000.0, 6000000000000000000000.0, 7000000000000000000000.0, 8000000000000000000000.0, 9000000000000000000000.0, 10000000000000000000000.0, 15000000000000000000000.0, 20000000000000000000000.0, 30000000000000000000000.0, 40000000000000000000000.0, 50000000000000000000000.0, 60000000000000000000000.0, 70000000000000000000000.0, 80000000000000000000000.0, 90000000000000000000000.0, 100000000000000000000000.0, 150000000000000000000000.0, 200000000000000000000000.0, 300000000000000000000000.0, 400000000000000000000000.0, 500000000000000000000000.0, 600000000000000000000000.0, 700000000000000000000000.0, 800000000000000000000000.0, 900000000000000000000000.0, 10000000

$$(\rho_0 \gamma)^{-1} \frac{\partial}{\partial t} (\rho_0 \gamma \mathbf{D}_0 \mathbf{D}_0^T) = \frac{\partial}{\partial t} (\rho_0 \gamma \mathbf{D}_0 \mathbf{D}_0^T) + \rho_0 \gamma \mathbf{D}_0 \mathbf{D}_0^T \frac{\partial}{\partial t} \ln \rho_0 \gamma$$

$\frac{1}{2}(\frac{1}{2} + \frac{1}{2}) = \frac{1}{2}$

10. 2017年12月21日 星期四

$$f(x) = \frac{1}{2} \left(\frac{1}{x} + \frac{1}{x^2} \right) \quad \text{for } x \in (0, 1) \quad (2.1)$$
$$\frac{d}{dt} \left(\frac{\partial L}{\partial \dot{x}} \right) = \frac{\partial L}{\partial x}, \quad \frac{d}{dt} \left(\frac{\partial L}{\partial \dot{y}} \right) = \frac{\partial L}{\partial y}, \quad \frac{d}{dt} \left(\frac{\partial L}{\partial \dot{z}} \right) = \frac{\partial L}{\partial z}$$
$$Z_1 = \frac{1}{\sqrt{2}} \begin{pmatrix} 1 & 1 \\ 1 & -1 \end{pmatrix} Z_2 = \frac{1}{\sqrt{2}} \begin{pmatrix} 1 & -1 \\ 1 & 1 \end{pmatrix}$$
[illegible]

[이탈리아의 예술가들](#)

1991,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0, 103-110.

[illegible]

Chicago, Ill. 1936. 215 pp.

James F. Woods & J. McDermy, Harvard University Press. Greenfield, Mass. 1988. Pp. xviii + 292.

thus and the *Proc. Theory Culture & Society* Vol 10(1).
 Midway, Wis. 1969. Chicago, Ill.

at County, University of Nevada press. St. Anthony, 1981, Maroon

General Question Stakeholder and the M...

- 21 -
